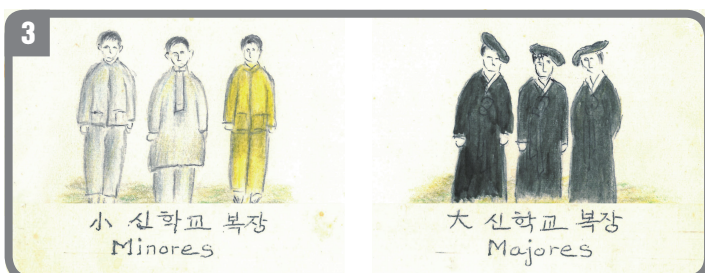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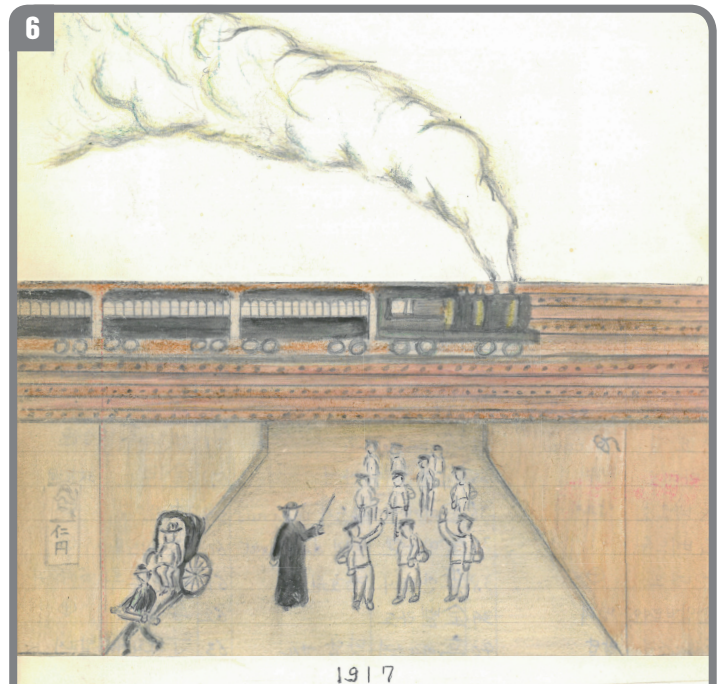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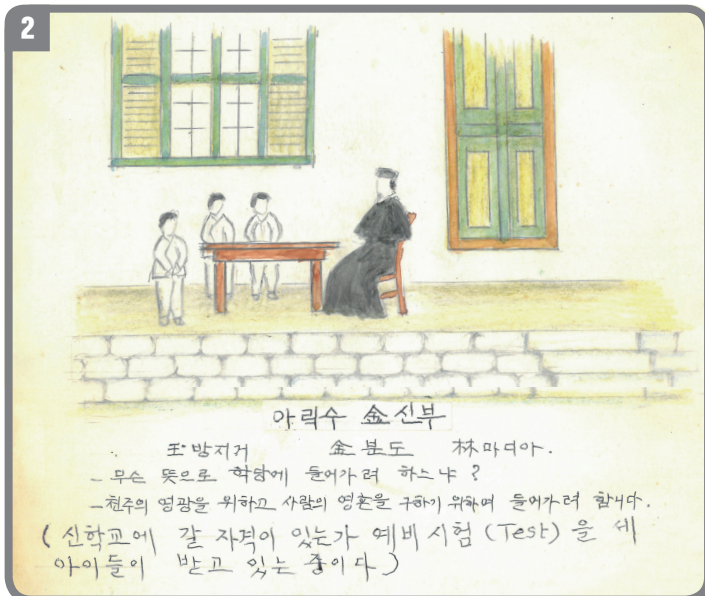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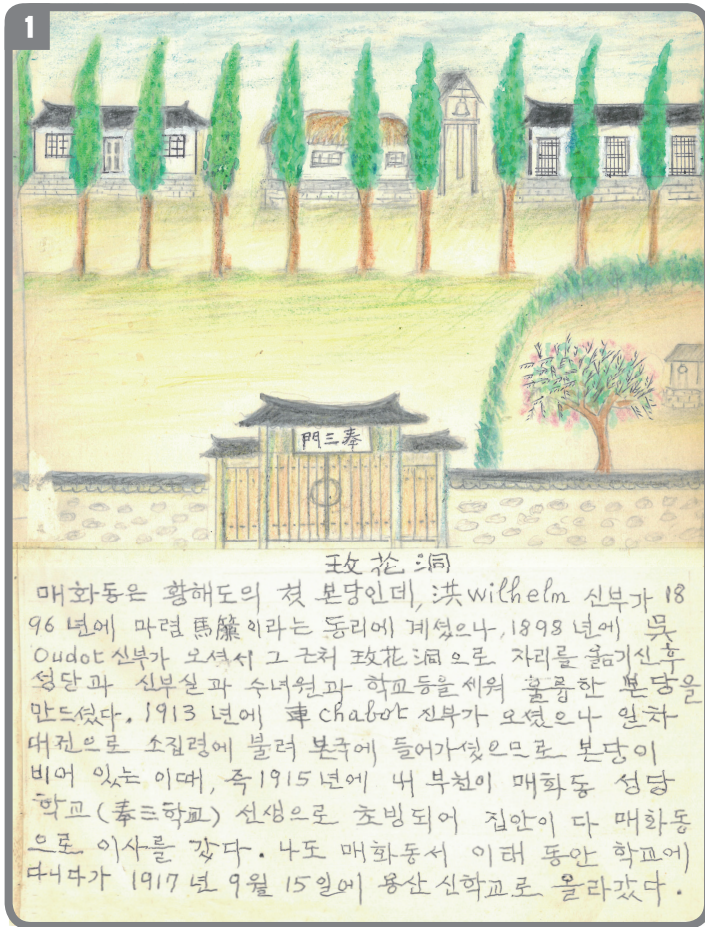


## # 신 학교 첫 걸음

『노사제가 만화로 남기는 신학교 이야기들』(임충신 글·그림, 가톨릭출판사)은 100여 년 전 용산 신학교에 입학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故 임충신 신부님의 삶을 통해 옛 신학교 모습과 생활을 다룹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신학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신학교 선생님 신부 아릭수 김신부가 매화동에 오셨다가 처음 서울로 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셨다. 용산역에서 하차하여 어떤 다리 밑으로 지날때 신부님이 저편으로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까 탔던 기차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왔다」 하시므로 우리 촌놈들은 깜짝 놀랐다.